



全國銀行 デイ터

通信 시스템



韓國科學技術研究所

技術情報室長 朴 漢 雄

情報處理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더욱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하는 사람이건, 사업하는 사람이건, 세금문제, 국가예산 등을 다루는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컴퓨터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는 능력 발휘나 시스템운영 등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사회각분야의 구조를 가능한한 컴퓨터를 통하여 연결시키고, 여기에 개재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축적하고 다시 필요한 장소로 흐르게 함으로써 사회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정보유통질서를 과학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말하자면, 컴퓨터는 20세기가 낳은 세계 제1의 文明의 利器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생활을 速度와 正確度面에서 혁신시켜주는 「데이터통신시스템」이야말로 문명생활을 즐기고자하는 20세기 후반 인류에게 공동적으로 즐 수 있는 세계제일의 선물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월초 며칠간 인근 일본여행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며칠간의 여행을 가지고 일본의 어떤 관점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우수운 일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경제가 근래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매스컴이나 혹은 평소 업무와 관련되는 책자를 통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을 실지로 확인했을 때의 욕망, 가령 “우리나라에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 앞서므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단면(일본全國銀行데이터통신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데이터통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은행관계자는 일본의 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특유의 이 시스템은 일본의 대부분의 은행을 상대로 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묶어서 각은행과 고객 간의 송금이나 자금청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있다.

이 시스템에 가맹되어 있는 은행은 전국의 都市銀行, 地方銀行, 信託銀行, 信用金庫 등을 포함하여 현재 88개銀行에 달하고 있고 각은행의 支店 등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실지 이를 활

—내가 본 세계 제일—

용하고 있는 송 기관(은행지점)수는 7,200여에 달하고 있다.

원래 이 시스템은 1968년에 가동을 개시한 전국지방은행의 데이터통신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현재는 하루 평균 약 30만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여 처리능력은 하루 최고 100만건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실금액 송달시간 등이 현저히 단축되어 제로 은행사무처리가 과거에 활용되던 암호의 폐지, 결제방식의 간소화 등 매우 합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실지 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는가 보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거래은행에 입금이나 혹은 송금을 원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우선 가까운 A은행의 a지점에 입금시킨다. 이 정보는 즉시 A은행센터에 입력되고 자기 테이프(on-line)로 중계컴퓨터(터미널)에 입력 다시 이 시스템의 중추 기관인 全國銀行센터의 컴퓨터에 기억된다. 이 중심센터에서는 가맹되어 있는 모든 은행의 데이터가 함께 처리되고 있으므로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을 때 B라는 은행지점 b가 그 도시에 있고, 그곳을 활용하고 싶으면 자금청구 입금 송금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통신종목은 보통송금, 전신송금, 국고송금, 보통당좌예금 자금의 청구 등 각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업무가 위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각은행의 터미널에는 4종류의 장치를 사용하여 전국은행 센터와 접속하고 있다. 이것은 각 은행의 본점과 지점이 자기은행내의 on line 시스템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만, 은행에 따라 시스템의 규모, 구성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미널 장치는 두대 이상 설치하여 통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한다.

그리고 전국은행센터의 정보처리장치는 정보처리능력과 신뢰성을 민족시키기 위해서 multiprocessor 구성의 대형전자계산기를 on line 처리용 2组, off line 처리용 1组 계 3组를 설치하여 만일 on line系가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는 off line 계로 이어져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국 88개은행이 약속한 통신종목에 관한 유통체계를 센터화 함으로써 그 종목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vser측의 입장에서 보면 88은행 7200지점이 사실상 자기가 직접거래하는 하나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자체의 입장이나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도 훨씬 편해지고 일이 쉬어지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通信기술을 銀行에 적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일본과 마찬가지 형태로 우리나라 모든 은행을 시스템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각 분야가 더욱 복잡해 지게 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데이터통신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도시교통문제 각지역별(道別) 데이터(인구의 이동 출생사망 등)의 on line처리, 혹은 기업의 제품생산을 돋는 제반 기술 시장정보를 루어서 유통시킨다는가 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희망을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가져본다.

역시 일본은 세계제1의 속도로 경제부흥을 일으킨 만큼 사회구조의 과학화에도 욕심이 대단한 것 같다.